

# 경의·동해선 연결 등 ‘SOC 경협’도 급물살 기대

동해선 남측 연결공사 연내 착수  
국토부, 사업비 2조3490억 책정  
문산~개성 경의고속도 연내 착공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18일 개최됨에 따라 남북의 철도와 도로 연결 등 사회간접자본(SOC) 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남북은 이미 4·27 정상회담 때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과 동해선 등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북미 대화가 공전하면서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본격적인 경협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을 재개하면 SOC 경협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4·27 정상회담 때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SOC 경협의 핵심 내용은 경의선과 동해선 등 철도의 연결 및 현대화다.

경의선(서울~신의주)은 2004년에 이미 연결돼 2007~2008년 문산~개성 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 도착한 뒤 마중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간에서 화물열차가 운행하기도 했으나 현대화가 되지 않아 시설이 노후화됐다.

동해선은 부산에서 출발해 동해안을 따라 북한을 관통, 시베리아횡단철도(TSR)가 지나가는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통하는 노선으로 현재 남측 강릉~제진 구간(104km)이 단절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동해선 남측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 중 연결 공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총사업비 2조3490억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도로의 경우 평양~개성 간 경의선 도로를 고속도로로, 동해선 구성~원산 구

간은 국도로 현대화하는 사업 등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 중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km) 구간에 대해 연내 연결 공사를 벌이기로 했다. 총사업비는 5179억원으로 추산됐다.

경의선 도로는 남한의 1번 국도를 통해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노선으로, 부산에서 서울, 평양, 신의주를 지나 중국으로 빠지는 한반도 핵심 도로망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경의선 연결이 선결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철도 연결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 접경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을 짓는 ‘통일경제특구’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경제공동체, 경제특구에 대한 북측의 답변이 나올 수도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는 남북 철도가 연결된 한반도종단철도(TKR)를 비롯해 중국 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종단철도(TMG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 노선을 따라 이어지는 물류 교통망을 통해 형성되는 에너지공동체이자 경제공동체다.

공동체에는 남·북한과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6개국에 미국도 포함된다.

통일경제특구는 남북간 평화가 정착됐을 때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남북 경제 공동구역이다.

이는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에 남한의 기술과 자본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경제특구를 만들자는 구상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세번째 남북정상회담에 건설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이날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 분야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설업계는 남북 경협이 본격화하면 북한의 사정을 감안할 때 가장 먼저 토목·전력 등 SOC 시장부터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이에 북한 건설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 4월 첫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협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대우건설은 전략기획본부 내 별도 ‘북방사업지원팀’을 신설해 정부 수급에 나섰다. GS건설도 토목·전력 등 인프라 사업 담당자 10여명을 발탁해 경협 참여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삼성물산도 영업팀 산하에 상무급을 팀장으로 하는 남북경협 TF를 구성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해외건설 수주가 부진하고 주택시장 규제, SOC 예산 축소 등으로 국내 건설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남북 경협사업이 본격화하면 건설업계의 관심도 대북사업에 집중될 것”이라며 “다만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리는 등 선결 과제가 있는 만큼 정부 대응을 지켜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 서해직항로, 남북 연결 ‘핫라인’ 부상

2000년 DJ 때 부터 30여차례 이용  
평창올림픽때 北 대표단에도 열려

서해직항로가 남북 간 연결고리의 ‘핫라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서해직항로를 이용한 것으로 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8시40분 성남공항을 출발해 오전 10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서해 직항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1차 정상회담 때 이용했던 경로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오전 9시18분 전세기를 타고 서울 성남공항을 출발해 67분 만인 10시 25분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서해직항로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비행기를 타고 서쪽 공해상으로

빠져 나간 뒤 다시 북상해 평양 서쪽 바다에서 우회전해 진입하는 ‘ㄷ’ 자 모양의 항로다. 북한 최전방 군인들이 남쪽에서 오는 비행기에 대해 무의식 중에 공격할 수 있어 군 주둔지를 피하기 위한 우회 항로로 알려져 있다.

서해직항로는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30여차례 이용되며 방북·방남의 주요 경로가 됐다. 2001년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조문하기 위한 북측대표단과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북측 조문단이 이 항로를 이용했다.

지난 2014년 10월에는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 북한 고위급 3인방이 전용기를 타고 서해직항로를 통해 인천아시아게임 폐막식에 참석했다. 우리 항공기가 이 항로를 이용해 평양에 간 것은 2015년이 마지막이다. 그해 8월 이희호 여사가 방북했고 10월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참가를 위

해 서해직항로를 이용했다.

이후 막혔던 서해직항로는 올해 2월 북측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김영정 노동당 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면서 3년 4개월만에 다시 열렸다. 지난 5일에는 우리 측 남북특별사절단이 서해직항로를 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문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 항로를 이용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열악한 도로사정도 있지만 특사단 방북을 통해 이미 검증된 경로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에는 공식수행원 14명을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 52명으로 구성된 특별수행원이 평양으로 떠났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은 지난 5월 26일 2차 회담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모습은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의장대 사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DJ·노무현 이어 ‘백화원’ 묵는 文 대통령

남측 인사·외국 귀빈 숙소로 사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평양정상회담’을 위해 1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백화원영빈관에서 이틀을 묵는다.

‘백화원초대소’로도 불리는 백화원영빈관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숙소, 2007년엔 역시 정상회담차 평양을 찾은 노무현 대통령의 숙소로 각각 사용됐다. 1990년 초 남북고위급회담 때는 한국 대표단의 숙소로 쓰이기도 했다.

남측 뿐 아니라 외국 귀빈들도 이 숙소를 사용했는데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과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도 같은 곳에 묵었다. 가장 최근에는 정권 수립 7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로 방북한 리잔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7월에는 협상을 위해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곳에 머물렀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월 31일 백화원영빈관에서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상을 접견한 바 있다.

평양특별시의 중심에서 북동쪽으로



문재인 대통령 숙소 백화원 영빈관. /연합뉴스

10여분 거리의 평양시 대성구역 임흥동에 위치한 백화원영빈관은 1983년 건립, 외국의 주요 국빈급 사절이 방문할 때 이용하고 있는 북한 최고의 영빈관이다. 김일석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과도 가깝다.

주변 화단에 붉은색 세이지를 비롯해 100여 종류의 꽃들이 심어져있다고 해 ‘백화원(百花園)’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백화원영빈관은 3층 규모의 건물 3개 동이 통로식으로 서로 연결돼 있다. 건물 바로 앞으로는 대동강이 흐르고 뒤편엔 울창한 숲이 위치해있다. 또 여러 개의 분수대와 대형 인공호수도 조성돼 있다. 건물 내부는 대리석으로 단장돼 있는데 북측은 최근 개보수 공사를 완료했다. ‘5월1일경기장’이 있는 능라도와도 멀지 않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 여야 “정상회담 통해 실질적 성과 끌어내야”

여야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남북 국회회담을 통한 남북정상회담 뒷받침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측의 비핵화 확답에 각각 방점을 찍는 등 온도 차를 보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남북은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 발전과 긴장 완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한 실질적 합의와

구체적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면서 “새로운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국회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남북 국회회담도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국민적 염원”이라며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앞당기고 구체적 확답을 받아내는 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